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 외국인투자환경의 변화^{*}

김 관 호^{**}

목 차

- I. 서 론
- II.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III. 금융위기 전후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 IV.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외국인투자 대내환경의 변화
- V.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외국인투자 대외환경의 변화
- VI. 맺음말

I. 서 론

지난 1980년대 중반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던 아세안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¹⁾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아세안경제는 2차대전후 최악인 -7%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²⁾ 1999년 들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세안경제가 또다시 고도성장 궤도에

*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아시아지역학부

- 1) 아세안의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금융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국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3.7%, 말레이시아가 -6.2%, 필리핀이 -0.5%, 그리고 태국이 -8.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DB 1999, 5).

진입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세안경제의 고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제공된 자본과 기술은 아세안경제를 수출지향형 공업경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순수 국내산업 기반이 아직도 약한 아세안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향후 아세안경제의 재도약 여부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의 외국인투자환경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아세안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전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투자환경의 변화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아세안의 대내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아세안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 측면은 대외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아세안에의 주요 투자국, 특히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해외투자와 對아세안 투자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를 전후한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환경변화가 갖는 아세안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II.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1980년대 중반이래 아세안 경제가 고성장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아세안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놓여 있다. 전후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수입대체전략을 추구해 왔던 주요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수출촉진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들어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성장의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85년은 아세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해라 할 수 있다. 1976년 약 9%대에 이르렀던 아세안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평균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은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아세안 4개국의 경제는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고 1988년에는 다시 9%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금융위기의 발생 이전까지 이들 4개국은 평균 7%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아세안 4개국이 이처럼 장기적인 경제하강 국면에서 회복하여 고성장의 궤도에 접어들 수 있었던 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공업화 전략이 특히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공업화를 위한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 국가는 1980년대 들어 이의 조달 방법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이후 아세안 국가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즉 엔고에 따른 대외가격 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내의 생산기지 이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과 대만의 기업들도 자국 화폐가치의 상승, 국내 임금의 상승을 배경으로 아세안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아세안 4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은 각국의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아래의 <표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표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선발 개도국인 한국과 대만에 있어 1970년대의 경제도약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했던 역할에 비해, 후발개도국인 이들 아세안 4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도약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월등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가장 미미했던 필리핀의 경우도 1990년대 들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투자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 생산의 37%, 공산품 수출의 49%(1992년)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성장 주도산업이 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자산업은 태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산업으로, 1980년대 후반 이래 태국에 대거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나 태국에 비해 전자산업의 발전은 크게 뒤떨어져 있으나, 1990년대 들어 同 산업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요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1〉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국 가	1971~1980	1981~1990	1991~1995
인도네시아	3.5	1.5	4.3
말레이시아	13.6	11.3	21.3
필 리 핀	1.0	3.8	7.4
태 국	2.3	4.8	3.7
한 국	1.2	0.9	0.7
대 만	1.3	2.6	2.4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각호, UNCTAD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자동차산업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980년대 중반 이래 아세안의 경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엔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물론 아세안 경제의 수출 주도형 공업경제로의 전환은 외국인직접투

3) UNCTAD의 1992년 World Investment Report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주요 배경

자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10여년에 걸쳐 목격된 급속한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없이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III.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1980년대 중반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아세안 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하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약 2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세안 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II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세안 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엔진이었으며, 향후 아세안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의 여부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에 상당히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국내 산업기반, 국내 기술역량이 아직 취약한 아세안 경제에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 재도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여부는 아세안 경제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UNCTA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1999, March 4) 금융위기를 겪은 아세안 4개국에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1998년에 약 103억달러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당해인 1997년의 146억달러, 그리고 그 전년도의 151억달러의 유입규모와 비교할 때 약 30% 이상 격감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연평균 유입규모인 97억달러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금융위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목격되지 않고 있다.

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성장의 엔진(the engine of growth)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별로는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심각한 정치·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된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순유입 규모는 마이너스 13억달러(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가 신규 투자를 초과)에 이르러 최대 유입규모를 기록했던 1996년의 62억달러, 그리고 1991~1995년의 평균 수준인 23억달러 수준에 비해서도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태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991~1995년의 평균 유입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하는 7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8년중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1998년의 유입규모는 1991~1995년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2〉 금융위기 전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세

(단위: 10억달러)

국 가	1991~1995 ¹⁾	1996	1997	1998
인도네시아	2.3	6.2	4.7	-1.3
말레이시아	4.5	5.1	5.1	3.6
태 국	1.0	1.5	1.1	1.0
필 리 핀	1.9	2.3	3.7	7.0
합 계	9.7	15.1	14.6	10.3

주 : 1) 연평균 유입규모

자료 : UNCTAD Press Release 1999, March 4.

요약하면 국별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4개 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대체로 1990년대 전반기의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감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인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세안 국가들의 화폐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의 제고, 국내 자산가치의 절하에 따른 매수기회의 확

대,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 완화 등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단기적 성격의 포트폴리오투자와 달리 비교적 중장기적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자본이라는 점도 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위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5개국, 즉 아세안 4국과 한국에 순유입된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1996년 140억달러선에서 1997년 마이너스 32억달러로 급감한 반면(UNCTAD 1999, March 4)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의 자본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에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를 살펴보는 보다 정확한 방법은 절대적인 유입규모의 변화 보다는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은 1991년에서 1998년의 기간중 아시아 개도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 5개국(아세안 4개국과 베트남)에의 유입 비중은 1991-1995년의 평균 24%선에서 1998년에는 16.7%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의 유입 비중은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위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1998년의 경우 아세안에의 유입 비중은 전년 대비 4.1% 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중국에의 유입 비중은 4.8% 포인트 상승하여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중은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계속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즉 아세안에의 외국인투자 유입 비중은 30%를 넘어섰던 1991년과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한 반면 중국에의 유입 비중은 1991과 1992년의 14%선에서 1993년에는 22%, 1994년에는 45%선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상하는 중국경제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수출경쟁국이자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국으로서 큰 위협요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94년 치앙마이 아세안 경제장관회담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AFTA의 관세인하 추진일정을 예정보다 5년 단축키로 합의한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국으로서 도전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금융위기는 이와 같이 아세안의 외국인투자 입지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따라서 외환위기의 여파가 아세안의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아세안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아시아 개도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10억달러)

국 가	1991~1995	1996	1997	1998
최빈개도국	0.7	0.8	0.6	0.5
남 아시아	2.9	4.6	5.4	5.5
아세안5국	24.0	22.9	20.8	16.7
NICs	21.3	18.6	19.4	18.7
중 국	51.0	53.1	53.8	58.6

자료 : UNCTAD Press Release 1999, April 27.

IV.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외국인투자 대내환경의 변화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를 결정하는 투자유치국의 환경요소에는 시장의 규모,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정치·사회의 안정, 생산요소의 질과 가격, 노사관계, 사회간접자본의 수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투자환경 요소 들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의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아세안은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치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유인조치의 도입' 과 '아세안공업협력계획의 확충' 그리고 '아세안 투자지역의 창설' 의 세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단기적 유인조치의 도입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9개국은 아세안의 경제회복과 성장촉진을 위한 공동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과감한 조치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Bold Measures)"으로 명명된 이 성명서는 ①AFTA 이행의 가속화 ②아세안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유인조치 ③아세안공업협력(AICO)계획의 확충 ④제2차 서비스협상의 개시의 4개 분야에 있어 '과감한' 조치를 내용에 담고 있다.

이중에서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유인조치는 同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계감면, 국내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외국인투자지분의 확대, 산업용 부지 이용의 확대, 통관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제 완화의 6개 분야에 걸친 유인조치로서, 1999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기간중에 아세안에 투자인가를 신청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단기적 투자유인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따른 아세안 개별회원국의 주요 신규적용상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단기적 유인조치는 2년의 기한내에 신청한 투자사업에 한해 적용되지만, 혜택의 부여는 同 투자사업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또한 세계감면과 토지사용에 관한 유인조치를 제외한 여타 조치들은 비단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 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기업의 인수나 지분참여를 통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단기적 유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저 투자금액에 대한 개

별 회원국의 부여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만족해야 하며, 개별 회원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체 투자금액이 외국에서 유입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한해 同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며,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별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은 제외된다.

〈표 4〉 단기적 투자유인조치의 내용과 회원국의 적용상황

분 야	내 용	회원국 주요 신규적용 상황
세계감면	- 최저 3년간 법인세 면제 또는 최저 30% 법인세 감면 - 수입자본재 관세면제	라오스 : 투자촉진사업용 자본재 수입시 관세면제 미얀마 : 모든 투자사업에 3년간 법인세 면제 싱가포르 : 제조업, 기술서비스, 컴퓨터관련 서비스 등의 투자사업에 30% 투자세액 공제 태국 : 총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투자에 대해 기계류 수입시 관세면제 베트남 : 모든 투자사업과 관련된 자본재 수입시 관세면제
국내시장 접근	- 현지국 국내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	필리핀 : 유통업, 민간건설업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인 투자지분	-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허용	브루나이 : 고도기술 제조업 및 수출지향산업 인도네시아 : 제조업 전분야, 도소매업, 상장은행 말레이시아 : 제조업 전분야 태국 : 제조업 전분야
산업용 부지 이용권	- 최저 30년간 공장용지나 산업용 부지의 이용 또는 임대권 부여	말레이시아 :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일부 예외)
통관절차	- 투자용 원자재의 수입시 CEPT 녹색라인을 통한 신속통과	
외국인력 고용	- 투자자의 요청시 외국인 전문, 경영, 기술인력직 승인 - 동분야의 외국인력 및 가족에 최저 1년기한의 복수비자 발급	

자료: ASEAN Secretariat, 1998c.

아세안이 단기적 투자유인조치를 도입한 목적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외자의 조달이라는 기본적인 목적과 함께, 대외신뢰도의 저하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를 만회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타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단기적 유인조치는 이러한 투자의 전환을 막아 보려는 의도가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 투자유인조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세안은 이러한 조치를 '과감한 조치'로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과감성에 회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적용대상에서 서비스업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同 조치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同 조치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대상 업종의 축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同 조치의 과감성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조업 투자사업에 있어 외국인 허용 지분과 同 사업의 수출성향을 연계하던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고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100% 지분 참여를 허용한 것은 분명히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유인조치들이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 조치로 되어 있지만 2년이 경과후 同 조치들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同 조치의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제도의 역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투자 인센티브의 경우 그 성격상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대된 외국인투자 지분이 다시 축소 제한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2. 아세안공업협력계획의 확충

아세안공업협력(AICO)계획은 아세안의 역내 산업협력을 위해 추진한 계획중에서 비교적 효과를 거둔 두 개의 계획, 즉 아세안공업합작(AIJV)계획

과 상표간 보완(BBC)계획⁴⁾을 대체·개선한 협력계획으로서 1996년 11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AICO 계획은 최소한 두 개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부품의 교류, 자원의 공유, 공업의 보완, 또는 여타의 제품생산 협력 등과 같은 협력관계 협정을 맺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은 즉시 0~5%의 역내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최소 30%의 아세안 지분을 가진 아세안내에서 설립되고 가동중인 기업들간에만 적용된다.

이 계획은 역내 분업의 확대를 통한 역내공업생산의 효율화 및 생산능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특히 외국기업과 현지기업의 합작투자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AFTA 관세인하혜택의 즉시 향유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되, 이의 향유를 위해서는 역내 기업과의 합작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의 일환으로 30%의 아세안 지분요건을 1999년에서 2000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세안내 기업들간에도 AICO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치가 의도하는 바는 앞에서 언급한 단기적 투자유인조치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확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단기적 투자유인조치의 내용중 100% 지분허용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아세안내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회사간의 사실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현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이 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내 다국적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의 발전 역시 이 조치가 의도하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세안 공업합작사업계획과 상표간 보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원용걸(1996, 37~40) 참조.

3. 아세안 투자지역의 창설

1998년 10월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9개 회원국들은 '아세안 투자지역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세안지역을 하나의 개방되고 경쟁력있는 투자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단기적 투자유인조치와 달리 사실 이 협정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세안이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5년 12월 제5차 아세안정상회담(방콕) 부터이며, 이후 약 2년 반의 실무 작업을 거쳐 1998년 10월에 협정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이 이 협정을 추진한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은 금융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약화된 아세안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만회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회원국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 협정이 전격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기의 극복이라는 아세안의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의 상황은 아세안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즉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 역내국간의 차별적 투자장벽의 철폐 일정을 원래 협정에 명시된 2010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1) 아세안 투자지역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⁵⁾

아세안 회원국들은 보다 자유롭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아세안투자지역의 설립을 이 협정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러

5) 이 협정은 前文, 총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의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김관호(1998) 참조.

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 협정은 (i) 아세안 투자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의 공동수행(co-operation and facilitation) (ii) 투자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의 공동수행(promotion and awareness) (iii)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즉 투자업종의 개방과 내국민대우의 부여(liberalization)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크게 설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자유화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아세안 회원국들은 타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그리고 비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투자업종을 개방하고 내국민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에 합의하고 있다. 단 회원국간의 투자자유화 일정에 있어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로 늦춰져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자유화의 일정을 앞당겼는데, 제조업 분야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로 목표시한을 재설정했으며, 재설정된 자유화 일정에 미얀마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도 협정에 명시된 일정을 각각 3, 5년 단축하여 2010년까지 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의 의무에 대해 각국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각국은 자국에 민감한 부문의 경우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이 협정의 체결후 6개월 이내에 각국은 이러한 민감 부문을 기재한 '민감목록(Sensitive List: SL)'을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사항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국이 목표시한까지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점진적 철폐의 방식을 따른다. 즉 각국은 역시 협정의 체결후 6개월 이내에 현재 즉각적으로 자유화할 수 없는 부문 또는 조치를 기재한 '일시적 배제목록(Temporary Exclusive List: TEL)'을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사항은 매 2년 마다 검토를 받고 궁극적으로 목표 시한까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한편 투자협력 및 원활화, 투자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각국은 이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역시 매 2년마다 심사를 받도

록 되어 있다.

이밖에 각회원국은 자국의 투자관련 법규, 조치, 행정방침 등을 제시하며, 이의 변동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해야 하는 투명성의 의무도 부여 받는다.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감독은 각료급 기구인 AIA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2) 협정의 의미

이 협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세안지역 전체가 하나의 투자 입지 지역이라는 인식의 제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세안 회원국 경제의 긴밀한 연계에 의해 일국의 투자유치는 비단 투자유치국에 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회원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파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수행하기 보다는, 회원국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지역에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이 협정의 기본적인 의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원국간에 서로간의 압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여타의 지역경제통합체의 투자협정-예컨대 NAFTA의 투자협정-과 달리 역내국간의 투자확대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세안 역내국간의 투자, 즉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역내 선진국으로부터 역내 후진국으로의 투자는 최근 확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세안 전체 투자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중에 아세안 5개국간에 이루어진 역내 투자규모는 약 5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이해에 이들 아세안 5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규모인 650억달러선의 약 7.7% 정도 밖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아세안내 최대 투자국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는 경우 아세안 4개국간의 역내 투자규모는 16억달러선으로 이들 4개국에 유치된 전체 외국인투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선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같은 아세안의 후발국가에의 투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역내투자의 확대라는 차원의 취지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내 선진국으로부터 역내 후진국으로의 투자확대라는 문제를 이 협정이 지향하고 있는 직접적인 목표로는 보기 어렵다. NAFTA의 투자협정의 경우 미국기업의 멕시코 진출확대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세안 투자지역협정의 경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기업의 베트남 진출확대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 5〉 아세안 5개국의 역내투자 매트릭스(1995년)

(단위: 백만달러)

B \ A	싱가포르	태 국	말레이시아	필 리 핀	인도네시아
싱 가 포르	-	1,527	403	3	1,469
태 국	n.a.	-	5	378	35
말레이시아	n.a.	219	-	6	877
필 리 핀	n.a.	9	5	-	31
인도네시아	n.a.	29	35	0	-

주: A=투자유치국 B=투자국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1997

이 협정이 근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역외국으로 부터의 아세안지역에의 투자유치 확대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투자장벽을 철폐한다는 점은 이 협정의 근본 취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단은 역내국간의 투자장벽 철폐를 추진하지만, 이 역시 겨냥하는 목표는 역내국간 투자확대라기 보다는 역외국으로 부터의 투자유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세안의 한 회원국에 투자진출한 역외국의 기업은 이 협정하에서 아세안의 투자자로 인정되며,⁶⁾ 따라서 아세안의 국내 기업들과 마

6) 역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경우 아세안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규정하고 있는 지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찬가지로 타회원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아세안의 한 회원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타회원국에의 사업확대 역시 훨씬 적은 규제하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역외국 기업에 대한 아세안의 유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아세안의 공동체적 의식은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은 아세안내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형성의 대표적인 경우로 자동차산업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도요타사의 경우 아세안 5개국에 걸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자동차 각각의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된 부품을 상호 교환하며, 아세안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스티어링 기어와 전기장치를,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솔린 엔진과 프레스 부품을, 필리핀에서는 트랜스미션을, 그리고 태국에서는 디젤엔진과 프레스 부품, 전기장치 등을 생산하여 이를 서로간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의 경우 도요타사의 아세안 자회사들간에 이루어진 거래 규모는 1억 달러 규모로서, 도요타사의 기업내 전체교역의 약 20%가 아세안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World Investment Report 1996, 100). 1980년대 중반이후 아세안의 성장 주도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도 다국적기업의 아세안내 생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산업이다. 일본 마쓰시타사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16개사, 싱가포르에 8개사, 태국에 3개사,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2개사의 자회사를 두고 부품거래 등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김희주 외 1995, 107).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의 주도하에 아세안내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회원국 경제는 서로간에 보다 긴밀히 연결되게 된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아세안내

에서 행하는 기업내 교역이 아세안의 전체 역내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의 네트워크하에서 아세안의 어느 한 회원국에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타회원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르는 전후방 효과는 한 회원국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세안 전지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회원국의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는 타회원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보면, 어느 한 회원국의 열악한 투자환경은 타회원국의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다.

이 협정이 언급하고 있는 아세안 투자지역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전망

이 협정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지의 여부는 회원국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유화 노력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들이 이기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지나치게 많은 부문을 민감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 협정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유화의 일정을 단축해 나가는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에 따른 가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3년까지로 자유화 추진일정이 단축되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2010년이라는 자유화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2020년이라는 역외국에의 개방일정은 너무 장기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일정의 단축을 통해 협정의 효과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AFTA의 관세인하의 경우에 있어 아세안 회원국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역시 너무 장기적인 관세인하 일정을 설정하고 너무 많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인정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데 있었다.⁷⁾ 아세안 투자지

7) 아세안 전체로 95년말 까지 HS 9단위 기준 2,496개 품목군이 일시제외 품목으로 AFTA

역 협정 역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 제고되고 있는 공동체적 의식이 앞으로도 계속 자유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 이 협정의 효과를 크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외국인투자 대외환경의 변화

외국인투자를 원동력으로 한 아세안 경제의 성장 모델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 여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아세안의 정책적 노력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투자국의 해외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래 아세안에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아세안의 공업발전에 기여한 일본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아세안 경제의 전망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본을 선두로 하여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기러기 편대와 같은 모습으로 동반 성장해 간다는 안행(雁行)모델(Flying Geese Paradigm)은 여러 가지 비판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래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비교적 유효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침체, 그리고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라는 상황은 이 모델의 유효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절에서는 안행모델에 따른 아세안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1990년대의 상황 변화, 특히 금융위기 이후 同 모델의 수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여 아세안 외국인투자의 외적 환경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의 CEPT(공동실효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317개 품목군이 인도네시아에 의해 지정되었다.

8) 대표적으로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불평등한 분업구조의 심화에 대한 비판(Walden 1993)과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선도국으로서 일본의 소극적 노력과 능력의 한계에 대한 비판(Rowthorn 1996) 등을 들 수 있다.

1. 동아시아 안행모델과 아세안의 경제발전

Akamatsu(1932)의 일본경제 발전이론과 Kojima(1973, 1978)의 직접투자 이론을 결합하여 Ozawa(1990, 1993, 1995)등에 의해 발전된 안행모델 이론의 핵심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질서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질서는 높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가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을 후발 단계에 있는 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해 이전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Ozawa는 발전단계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를 선도국으로서 일본, 1단계 신흥공업국으로서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2단계 신흥공업국으로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아세안 4개국, 그리고 3단계 신흥공업국으로서 중국과 베트남 등의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4개군의 국가들간에는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의 직접투자를 통한 비교우위의 순환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Ozawa의 안행모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반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선도국인 일본의 경제발전과 국내 산업구조 조정이라 할 수 있다. Ozawa는 전후 일본경제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을 설명하고, 동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이를 답습하는 산업발전 과정을 모델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의 동반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일본경제의 산업구조 조정은 일본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을 해외에 재배치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이를 원동력으로 하여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⁹⁾

Ozawa의 안행모델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과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

9) 안행모델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한 모델이기는 하나, 동시에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는 비판적 주장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Hatch(1998)는 동아시아의 후발국들이 일본에 자본과 기술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였으며, 일본의 경제침체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이들 후발국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결국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산업, 예컨대 섬유나 전자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이 모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순차적인 발전이 비교적 잘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차적 발전 과정에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세안은 이 모델에서 일본과 1단계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이 재배치되는 지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6>은 아세안 4개국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스톡의 투자국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일본과 1단계 신흥공업국에 의한 투자가 아세안 4개국에 이루어진 전체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자는 자국 화폐가치의 상승, 국내임금의 상승 등에 따라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의 재배치를 위한 생산거점형 투자라는 성격을 주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7>은 일본과 미국의 對아세안 투자의 성격을 비교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의 경우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제조업 투자의 비중은 3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표 6>과 <표 7>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제조업 분야의 투자에 있어 미국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의 투자가 훨씬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아세안 4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별 분포

(1997년말 스톡기준, %)

	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 본	30	20	25	32
NIEs	30	28	16	34
미 국	17	7	30	14
유 럽	12	28	23	13
기 타	11	17	6	7

자료: Thomsen(1999), p.10

〈표 7〉 미국과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의 비교

(1997년말 스탁기준. 단위: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합계
일본					
제조업	12,380	7,104	3,176	8,914	31,574
비제조업	20,662	2,695	2,328	3,420	29,105
미국					
제조업	358	3,222	1,616	1,090	6,286
비제조업	7,037	2,401	1,787	2,447	13,672

자료: Thomsen(1999), p.11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있어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의 역할은 아세안내 일본계 투자기업의 수출이 아세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표 8〉은 일본의 JETRO가 조사한 자료로, 이 자료에 따르면 1996년중 아세안 전체 수출물량의 약 28%, 그리고 수입물량의 약 14%가 일본계 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수치의 과대 평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업의 교역활동이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표 8〉 아세안내 일본계 제조업체의 무역활동 (1996년)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총수출	일본계기업 수출	비중	총수입	일본계기업 수입	비중
태국	55,789	25,091	45.0	73,484	11,079	15.1
인도네시아	48,059	11,15	23.2	42,945	6,586	15.3
말레이시아	78,246	14,884	19.0	77,797	10,520	13.5
필리핀	20,543	5,604	27.3	31,756	3,686	11.6

자료: JETRO 1999, p.42

2. 금융위기를 전후한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 추세

(1) 1990년대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 추세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 세계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했던 일본경제는 1990년대 들어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투자 역시 감소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의 해외투자가 최정점을 이루었던 지난 1989년과 1990년의 경우 일본은 세계 전체 해외투자의 약 20%를 차지하기 까지도 하였지만,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 미만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표 9〉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세

(단위 : 백만달러, %)

	1983-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액	14,040	44,130	48,024	31,620	17,390	13,830	18,090	22,508
비중	14.9	20.2	19.7	15.9	8.6	5.7	6.3	6.3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1995~1998.

1990년대 들어 일본의 해외투자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일본경제의 거품붕괴와 경기침체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거품경제 시기에 일본 다국적 기업들의 용이한 해외투자 자금조달 방법이었던 채권의 발행, 그리고 과대평가된 자산을 담보로한 은행대출 등이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더 이상 여의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 해외투자의 각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타지역에의 투자에 비해 비교적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의 전체 해외투자 중에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투자 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오히려 1990년대 전반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1989년에 10% 미만이었던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비중은 1992년에는 18%선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이후 對 중국 투자 확대에 따라 아세안에의 투자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1994년과 1995년에도 16%가 넘는 투자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에게 있어 전략적 투자지역으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1990년대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세

(단위 : 백만달러,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 체							
금 액	2,782	3,243	3,082	3,179	2,398	3,887	4,110
비 중	4.1	5.6	7.4	9.3	6.6	9.3	8.1
제조업							
금 액	1,553	2,028	1,945	1,808	1,474	2,241	3,096
비 중	9.5	13.0	15.7	17.9	13.2	16.2	16.6

자료: JETRO 1996~1999.

(2) 금융위기와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

세계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998년중에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NCTAD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8년중 세계의 총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6천4백억달러에 이르러 1997년에 비해 3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UNCTAD 1999, June 22).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 외에도 1998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폭의 증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98년에 오히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대장성이 최근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8

년 회계연도¹⁰⁾ 중 일본의 총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520억 엔 수준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6%대로 하락한 일본의 해외투자 비중은 더욱 하락하여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금융위기를 전후한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

(단위: 건, 백만엔)

	1996년		1997년		1998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태 국	196	1,581	154	2,291	72	1,755
인도네시아	160	2,720	170	3,085	62	1,378
말레이시아	69	644	82	971	32	658
필 리 핀	75	630	64	642	45	485
합 계	500	5,575	470	6,989	211	4,276

자료: 日本 大藏省 1999.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는 특히 북미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중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해 44%나 격감했으며, 이중 아세안 4개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해 건수기준으로는 55%, 그리고 금액기준으로는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의 제2절에서는 1998년중 전세계로부터 아세안 4개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30% 감소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에 많은 투자기업을 갖고 있는 일본이 아세안의 금융위기에 의해 특히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일본 해외투자 능력의 전반적인 약세가 최근에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0)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다.

3.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의 전망

일본경제의 침체 상황이 지속되는한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약세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일본경제에 있어 배후 지역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능력의 약화속에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기업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악화로 과잉설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비단 국내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역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연평균 4%대의 실질성장을 기록했던 일본경제는 1990년대 들어 연평균 1%대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997년에는 23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0.7%)을 기록한 후 1998년에는 -2.8%라는 전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따라 1999년들어 일본경제는 다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 전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경제가 재도약하는 시점은 경제구조조정의 조기완결 여부에 달려있겠지만, 빨라야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비교적 안전한 예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對아세안 투자의 위축상황은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확대 상황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있어 미국의 비중은 1990년 5%대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 16%대로 급등하였으며, 對태국 투자에 있어 유럽기업의 비중도 17%대에서 23%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가 세계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64%와 독일기업의 49%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기업중 20%만이 對아시아 투

11) 일본경제의 보다 상세한 전망은 조종화(1999) 참조

자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또한 일본의 투자위축과 미국 및 유럽의 투자확대 상황은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5개국(아세안 4개국과 한국)에서 이들 기업들이 행한 국내기업에 대한 매수합병(M&A) 투자건수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표 12〉 아시아 5개국에 있어 일본, 미국, 독일 기업의 매수합병 추세

(단위 : 건)

	1997년 전반기	1997년 하반기	1998년 전반기
일 본	648	223	239
미 국	542	2,066	1,955
독 일	556	898	872

자료: JETRO 1999, 38.

對아세안 투자에 있어 일본의 비중의 하락세와 미국과 유럽 비중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세안 경제에 있어 일본기업의 역할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미 일본기업들은 아세안에서 생산거점을 상당히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일본기업들의 경우 당분간 새로운 생산거점의 설립 보다는 기존 생산거점의 조정 및 확대를 위한 투자에 주력하려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아세안 국가의 통화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수출기반의 확대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아세안에서 과거 일본이 차지했던 위치는 미국과 유럽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라 상당히 침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금융위기를 전후한 한국과 대만의 對아세안 투자

안행모델에서 1단계 신흥개도국(first-tier NICs)으로 분류하는 한국과 대

12) 한국경제신문 1999년 6월 11일자 보도 내용

만은 2단계 신흥개도국(second-tier NICs)인 아세안 4개국에 역시 중요한 투자국 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교자본간의 협력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대만의 對아세안 투자가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94년말 잔고기준으로 대만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의 제 3대 투자국, 태국에의 제 5대 투자국, 그리고 필리핀에의 제 2대 투자국 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³⁾

대만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동아시아 국가라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라는 영향을 역시 받고 있다.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상태 악화, 그리고 금융불안의 결과로 1998년 대만경제는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4.8%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자금압박하에서 대만 기업들의 해외투자 역시 위축되고 있는데, 1996년과 1997년에 연간 3.2억달러에 달했던 대만의 對아세안 4개국에의 투자규모는 1998년 2억달러 규모로 크게 하락하였다.

금융위기를 직접 겪은 한국의 경우 아세안에의 투자규모는 더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신용도의 하락에 따라 현지법인의 자체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지법인의 경영난 완화등을 위한 본사 지원성격의 증액투자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4.1억달러에 이르렀던 아세안 4개국에의 투자규모는 1998년 2.5억달러의 규모로 하락하였다.

〈표 13〉 한국과 대만의 對아세안 4개국 투자규모

(단위 : 백만달러)

	1995	1996	1997	1998
한 국	393	267	411	253
대 만	186	321	325	209

주 : 1) 연평균 유입규모

자료 : UNCTAD Press Release 1999, March 4.

13) 'ASEM 참가국의 경제현황과 대한 경험관계' (1996)

향후 대만과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이들 국가의 경제회복과 병행하여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규 해외투자를 위한 여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극복이라는 문제와 함께, 동남아 금융위기에 의해 소유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화교기업들의 투자회복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¹⁴⁾

VI.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기가 아세안의 결속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금융위기는 오히려 아세안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라는 측면에서 금융위기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체적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경제간의 긴밀한 연계, 특히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형성된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아세안은 하나의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수행하기 보다는, 회원국 서로간의 협력과 긍정적 압력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인다는 정책 방향은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아세안의 발전적인 모습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500대 화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는 1998년에 약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UNCTAD Press Release 1999, July 30).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단행된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 유치노력들, 즉 단기적인 유인조치의 도입, 아세안공업협력계획의 확충, 그리고 아세안투자지역의 창설 등은 아세안의 외국인투자환경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투자지역 협정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들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의 투자환경을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對아세안 외국인투자의 대외환경의 변화는 아세안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내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해외투자 능력의 약세는 당분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본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결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침체가 보다 장기화되는 경우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는 계속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 위축은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확대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급락한 투자매물에 대한 매수·합병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가 아세안이 원하는 수출지향형 제조업 분야 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 치중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위기 이후 對아세안 투자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NICs, 그리고 아세안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아세안의 대외경제정책이 보다 전방위적인 정책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아세안의 외국인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여부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아직까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일본 엔화의 위안화에 대한 약세가 심화되는 경우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아세안의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가중하고 이는 아세안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아세안의 외국인투자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세안경제의 재도약 여부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관호, 1998. "ASEAN 투자지역 창설의 의미와 경제통합 전망." 『세계경제』,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희주 외, 1995. 『아세안의 도전』. 산업연구원.

양승윤, 1998. 『동남아와 아세안』.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원용걸, 1996. 『ASEAN 자유무역지대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경부, 1999.7.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현황』.

조종화 편, 1999.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日本貿易振興會, 1997. 『世界と日本の海外直接投資』.

臺灣經濟部, 1999.6.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ADB, 1999. *Asian Development Outlook*.

ASEAN Secretariat, 1998a. "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

_____. 1998b. "Statement on Bold Measures."

_____. 1998c. "Short-term Measures to Enhance ASEAN Investment Climate."

_____. 1999. "ASEAN Ministers open region to foreign investments."

Hatch, Walter, 1998. "Grounding Asia's Flying Geese: The Costs of Depending Heavily on Japanese Capital and Technolog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JETRO. *White Pap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5~1999.

Kojima, Kiyoshi, 1973. "A macro 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14.
- _____. 1978.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London. Croom Helm.
- Ozawa, Terutomo. 1990.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flying geese'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sia Pacific." Paper presented at the 20th anniversary World Conferenc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21st Century Scenarios. Tokyo.
- _____. 1993.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Japan as a recycler of market and industry." *Business and Contemporary World*. Vol.5.
- _____. 1995. "The flying geese paradigm of tandem growth." Paper presented at the 1995 AIB annual meeting. Seoul.
- Rowthorn, Robert. 1996. *East Asian Development: The Flying Geese Paradigm Reconsidered*. United Nations.
- Thomsen, Stephan. 1999. *Southeast Asia: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ies in Development*. OECD.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2~1998
- UNCTAD. Press Release. 1999. March 4, April 27, June 22, July 30
- Walden, Bello. 1993. "Trouble in Paradise: The Tens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World Policy Journal*.